

## 산 자 부 , 2015년 부 품 · 소 재 산 업 발 전 전 략 발 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10년 후 100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목표로 한 '2015년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12월 5일 발표했다. 부품·소재산업은 1997년 이후 8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사상최대인 200억달러의 흑자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부품·소재산업은 수출 4000억달러, 수입 3000억달러를 달성하고 10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둘 전망이다.

산자부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소재 원천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류 중핵기업(매출액 2000억원 이상, 수출액 1억달러 이상의 모듈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부품 원천기술 확보 ▲기초소재 원천기술 확보 ▲부품·소재 글로벌소싱 지원 ▲산·학·연 공동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의 전국 확산 ▲국가신뢰성 향상기반 구축 및 시장진입 촉진 등 6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 산 자 부 , 제 2 차 기 술 이 전 사 업 화 촉 진 계 획 확 정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심의회'에서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2006~2009)'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자, 용자, 보증, 출연, 거래, 유동화(채권발행) 등을 결정케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이 구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과 신기술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2010년까지 사업화 초기기업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현재 15.2% 수준의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에는 6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지원(R&BD)사업, 신기술보육사업 등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정부지원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와 관리화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이전을 위해 유망한 기술이전 지원기관을 5년간 40여 개 선별하여 총 56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기술 거래지원센터를 현 8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해 기술수출과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평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평가시장을 현재 연간 200억원에서 2010년까지 연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 산 자 부 , 생 물 산 업 기 술 실 용 화 센 터 (KBCC) 준 공

산업자원부는 12월 6일 국내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준공식을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과 황우여 의원,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조완규 바이오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본격적인 바이오의약품 종합 위탁생산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KBCC는 특히 제약계의 ISO 국제인증으로 통하는 미국 FDA의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에 부합되는 의약품 생산시설로, 국내 최초로 미생물 발효 500ℓ 라인, 동물세포 배양 500ℓ 라인, 완제 라인 등 3가지 공정을 모두 갖춰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지원이 가능하며, 공정의 최적화와 Validation(검증) 관련기술 지원, Quality Control(품질관리) 위탁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도로 기업 지원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 차원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최첨단 종합 위탁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게 되어, 앞으로 KBCC를 통해 업계에서 개발한 성장호르몬, 단백질호르몬, 인테페론, 인슐린, 단일클론항체, 예방백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

은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KBCC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세계 스타급 제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KBCC는 수출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준공 의의를 밝혔다.

KBCC는 2006년도에 시설과 장비, 운영 및 성능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한 뒤, 2007년부터 상업생산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 통 부 , 최 대 기 록 경 신 하 는 IT수 출 현 황 발 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올해 IT 수출이 지난 9월 69.1억달러를 시작으로 10월에 71.3억달러, 1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5% 증가한 72.4억달러로 3개월 연속 최대수출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IT업계의 거품이 붕괴된 2001년 이후 최초로, 특히 IT제품의 수출단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라는 계절적 특수를 겨냥한 적극적 시장개척을 통해 달성한 성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 휴대전화, 액정모니터, 셋톱박스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PC, 디지털 TV 등은 감소하였다. 한편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을 알아보면, 중국(홍콩포함)은 휴대전화, 반도체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5%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국의 국내 컴퓨터 생산에 대한 부품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또한 EU지역은 휴대전화의 수출(10.1억달러, 19.5% 증가)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그간의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지역 다변화로 휴대전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한 9.4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일본도 원-엔화 환율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한 4억달러를 수출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겨냥한 마케팅 강화로 3개월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던 IT 수출은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780억달러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 기 지 방 중 기 청 , 제 6 차 해 외 규 격 인 증 지 원 사 업 진 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2005년 제6차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421개 업체(전국 1199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에 2276개 업체가 경기지역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6차에는 616개 신청기업 중 421개 업체가 선정돼 68.3%의 높은 선정율을 보였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50%,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2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646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증획득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중 6회에 걸쳐 수시 접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421개 업체는 CE, UL 등 91개 제품 및 규격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차기 업체선정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올해 말 공고한 후에 2006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올해 말 해외인증 관계자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동 사업의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해외규격정보센터(www.standard.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 국 문 화 콘 텐 츠 진 흥 원 , 2005년 마 지 막 CT포 럼 개 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12월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로운 CT패러다임을 향해서’라는 주제로 2005년 마지막 문화콘텐츠기술(CT)포럼을 개최했다. 이 CT포럼은 지난 8월 전략기획분과 7명의 위원들과 CT포럼 운영위원 10명이 모여 진행한 ‘문화콘텐츠기술 블루오션 전략’의 논의결과 보고와 그동안 포럼의 연구 성과를 결산하는 공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장인 숙명여자대학교 김성혁 교수는 “그동안 CT포럼을 통해 국내 CT 관련 전문가들의 강력한 브레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국내외 CT 분야 간 협력과 기술교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서병문 원장은 축사를 통해 “CT는 국가 6대 핵심기술의 하나이며, 미래성장 동력이자 국가 유망기술인 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이라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CT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문화기술인력과 배재웅 과장은 "문화부도 CT분야 사업의 구체화와 문화부 내 문화기술인력 과를 신설하는 등 관심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면서, "CT포럼은 이 같은 문화부의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CT포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단국대 이재동 교수와 우송대학교 변승환 교수가 각각 CT 분야를 문화콘텐츠의 블루오션이라고 규정하고 개념정립과 향후 산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달의 신규회원가입 업체 발표

올해 여성벤처협회의 신규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는 총 59개이다. 특히 이달에는 이레피혁(대표 김혜경) 외 10개 업체가 신규회원으로 추가되었다.

- 이레피혁(대표 김혜경) - 가죽의류 제조·수출업체
- 안카뮤니케이션(대표 안지영) - 디지털 디자인 제조업체
- 예당이십일 (대표 심화숙) - 교육, 전시, 판매(한지공예) 업체
- 셀레네(대표 김명자) - 국내외 프랜차이즈 설립에 대한 설계, 시공 및 부가서비스업체
- 더웰빙푸드(대표 김형숙) - 축산물 훈제가공업체
- 씨오에프(대표 장정윤) - 프랜차이즈업, 닭가공유통업체
- 디오이펙트(대표 이기영) - IT관련사업 및 캐릭터 개발업체
- 변영수산(대표 김분순) - 수산물 유통업체
- 울타리버섯골(대표 남자숙) - 음식업체
- 인터그리티(대표 유혜경) - 웹서비스 기획 제작업체

## KOVWA 이랜서 온라인 무료 교육 과정 안내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KOVWA이랜서(www.elancer.or.kr)는 CS강사, 마케팅 홍보, 신소포몰 창업과정 등 장·단기의 15개 과정을 교육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의 유료과정 신청접수는 매달 1일 ~ 15일까지이고, 무료과정은 특별한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생들에게 프로젝트에 우선으로 추천하고, 협회장의 명의로 된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랜서 양성 공식사이트(www.elanc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랜서와 취업,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kovwa@kovwa.or.kr, 또는 02-6009-8506(임경준 팀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 5년 내 12조원 매출, 대덕특구 본격 출항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덕연구개발특구호(虎)'가 본격적으로 출항했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 1년에 가까운 물밑작업을 벌여오던 대덕이 '한국 선단'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닻을 올리고 나선 것이다. 특구號의 핵심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BI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덕R&D특구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까지 벤처기업 1500개 창업, 외국 R&D센터 8개 유치 등을 통해 12조원 매출이 기대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출연연 연구소 기업설립, 대덕특화벤처펀드 조성,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확충,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업화센터 자율성 부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등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66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29만평 부지로 조성되는 대덕테크노밸리에는 신축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고, 연구기관·기업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클러

스터의 조성도 이미 완료했다. 과학기술부와 연계해 특구의 본격적 출범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IT·BT·메카트로닉스·첨단부품소재 등을 주제로 4X4 혁신클러스터의 결성도 올해 초 모두 마무리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서두르며 '과학기술로 돈 벌어보자'는 도전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대덕특구 육성을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영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 확산 등을 제시했으며, 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VD Scrap



◀ 2005년 12월 8일 파이낸셜뉴스 16면  
지난 12월 7일 협회 창립 10주년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내년 벤처업계를 전망한 기사와 "향후 10년간 벤처 확산에 힘쓰겠다"는 조현정 회장의 비전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12월 5~7일 전자신문 3면  
협회가 지난달 중국에서 '베세도 IT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것과 관련, 벤처기업의 '차이나러시' 1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진출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행 기사.



◀ 2005년 12월 7일 전자신문 30면, 머니투데이 6면, 12월 8일 서울경제 35면  
협회 창립 10년을 맞아, 벤처산업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협회와 업계가 나아갈 길을 밝힌 조현정 회장과 오형근 상근 부회장의 기고문.



▲ 2005년 12월 5일 내일신문 8면  
벤처·중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2006 경제 운용계획'을 보도한 기사.